



## 다쏘시스템,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하는 3D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무상 지원

대한민국 서울, 2020년 04월 07일 - 다쏘시스템([www.3ds.com/ko](http://www.3ds.com/ko))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D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자사의 '바이오비아 디스커버리 스튜디오(BIOVIA Discovery Studio)'에 대한 6개월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의 바이오비아(BIOVIA) 솔루션은 생명과학 및 바이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재료설계부터 분자 시뮬레이션, 리서치, 협업, 화학제조, 품질관리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과학, 생물, 화학, 소재 분야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제약 및 바이오 업계의 획기적인 혁신과 신약개발을 지원한다.

사노피,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전 세계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상위 25개사가 이미 바이오비아를 사용하고 있으며, 듀폰, P&G 등 화학, 소비재 기업 상위 20여 개사도 사용하고 있다.

통상 신약개발은 출시까지 수많은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실리코(In-silico) 테스트 기술은 신약개발 및 치료제를 단기간에 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쏘시스템이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바이오비아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는 인실리코 연구를 지원하고, 분자 모델링을 통해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바이오비아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로 인실리코 실험을 시행하여 평균 약 36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바이오비아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는 가상 분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으로 약물의 효능, 안정성, 약리학적 특성, 생태학적 독성 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후보물질을 찾는 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쏘시스템코리아 조영빈 대표는 "다쏘시스템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학술 연구단체에 바이오비아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6개월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제품, 자연, 삶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다쏘시스템은 생명과학 산업의 디지털 혁신도 강력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다쏘시스템은 인류 발전을 이끄는 3D익스피리언스 기업이다. 기업과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는 협업 3D 가상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이 혁신, 학습 및 생산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가상 경험을 창출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쏘시스템은 140여 개국에서 27만 개 고객과 협력하여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다쏘시스템 코리아 소셜 채널]

다쏘시스템코리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assaultSyst...>

다쏘시스템코리아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3DSKOR>

다쏘시스템코리아 블로그: <http://blog.naver.com/3dskorea>

다쏘시스템코리아 네이버 포스트: <http://post.naver.com/3dskorea>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

채현경

[hyunkyung.chae@3ds.com](mailto:hyunkyung.chae@3ds.com)

앨리슨+파트너스 코리아

정민아 대표 / 이해연 대리

010-7310-2318

[3dsKR@allisonpr.com](mailto:3dsKR@allisonpr.com)